

# ‘127억원 경제효과’ 영광, 스포츠 산업도시 우뚝

31개 대회 개최·12만명 방문…지역경제 활성화

경기장 관리 등 주효…전지훈련 메카로 자리매김

영광군이 올해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스포츠 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올해 31개 스포츠대회 개최와 동·하계 전지훈련을 통해 127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냈다. 군은 전국 중고농구대회, 전국 종별농구 대회, 현정화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등 주요 전국대회와 더불어 전국 대학태권도대회, 전국 생활복싱대회 등 10개의 대회를 통해 8만2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해 82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

또 2025 영광 법성포 단오제 씨름대회 및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전남 대표선수 선발대회, 현정화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등 7개 전남

권 대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7000여명의 선수단이 방문했고, 7억여원 이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달성했다.

각종 메이저 대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봄·가을을 제외한 동·하계 대회 비수기

에 영광스포티움 체육시설 활용방안을 모색해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했다.

올해에는 축구·테니스·검도·농구·탁구·배드민턴 등 6개 종목에 걸쳐 총 12개

스포츠대회를 개최해 약 2만9000여명의

선수단의 체류를 유도했고, 총 29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군은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한 경기장 관리와 관람 환경개선, 참가자 편의시설

선별대회, 천년의 빛 영광 배드민턴·파크

골프·케이트볼·테니스 대회 등 7개 전남

활용 극대화를 위해 대회기간 동안 속박·



영광군이 올해 31개 스포츠대회 개최와 동·하계 전지훈련을 통해 127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냈다. 단오제 씨름(왼쪽)과 복싱대회 모습.

관광, 지역상권 연계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배드민턴 국가대표 상비군의 전지 훈련을 유치하고 참가 선수단의 호평을 받았고, 12월 중순부터 전국 고등부 등계 축구스토브리그를 시작으로 테니스·검도·농구·탁구 등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스포티움 경기장

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생활복싱대회, 3월 현정화배 전국 오픈탁구대회에 이어 4월 전국 중고농구대회, 전국 대학태권도대회 등 굵직한 대회들이 연이어 개최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 32개 이상의 스포츠대회 개최로 총 15만여 명의 선수단과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스포츠 산업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담양군과 순창군이 최근 청사 면적정실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고향사랑기부, 경마공원 공동유치 대응 등 민간분야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담양군·순창군, 민간분야 교류·협력 협약 체결

상생발전 기반 마련…고향사랑기부·경마공원 공동 대응

담양군과 전북 순창군이 민간분야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날 청사 면양 정실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고향사랑기부, 경마공원 공동유치 대응 등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분야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담양군의 정철원 군수, 장명영 군의회 의장, 정용오 이장연

회장, 순창군의 최영일 군수와 손종석 군의회 의장, 김영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양 지자체는 지난 9월 자매결연

협약 체결 이후 주요 유료 관광지의 입장료 상호 면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순창군과 자매결연 이후 상호 도시 간의 우의가 민간분야 까지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두 도시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군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 해남, 농식품부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선정

### 주민 스스로 생활서비스 계획·공급…내년부터 본격 시행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대상 지역 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농림·교육·생활 편의·문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서비스를 주민공동체가 스스로 계획하면 중앙·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약 모델이다.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수요를

급여량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6개 시·군, 전남에서는 해

남과 영광이 선정됐다.

군은 10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의 컨

설팅과 함께 서비스 협약 체결 전 과정

에 대한 전문 지원을 받는다. 주민공동 학습회, 워크숍, 공론장 운영, 서비스 제

안서 작성 등 주민 참여 중심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

은 해남군 주민공동체의 역량과 자지 기반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다”며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농·분·생활·문화 서비스를 직접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2026년 6월까지 주민 수요조사, 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모델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협약 기간 종료 후에는 성과평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확대 모델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8239@

## 여수, ‘2025년을 빛낸 10대 시정성과’ 선정

### 1위 여수사랑상품권 특별할인·2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여수시는 11일 매년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는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성과’의 올해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10대 시책은 시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진된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20%

특별할인 최초 시행, 지역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이 상위권에 선정됐다.

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백리섬설길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등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기반 확충을 위한 시책이 상위권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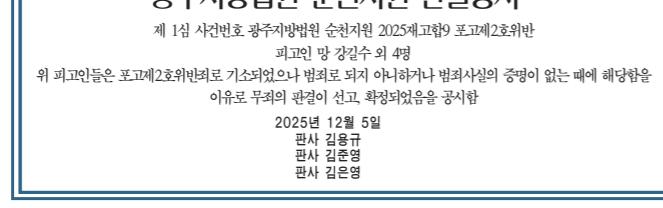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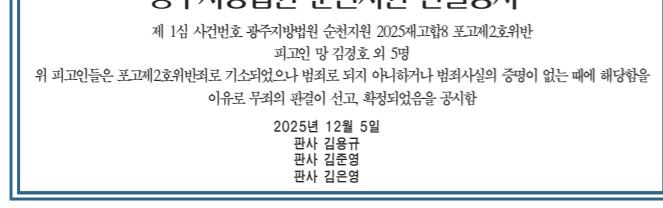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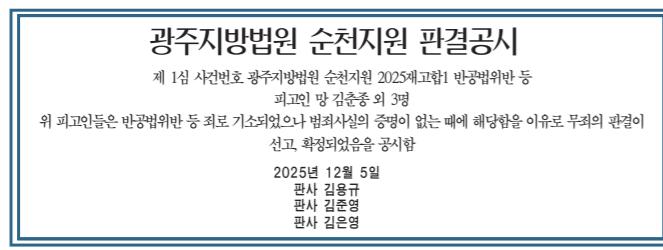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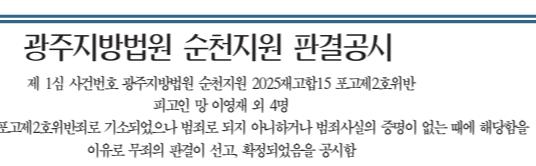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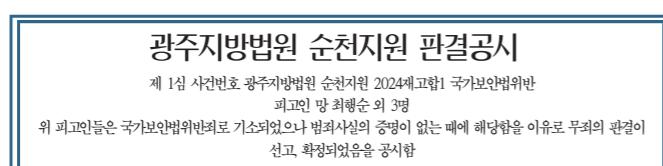
이와 함께 본정사·별관증축 공모작 선정, 진남관 해체·보수정비 완료, 여수만 레드나이트 추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확대, 10·19 여수사건 역사관 개관 및 평화공원 유치 기반 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도

함께 선정됐다.

선정 절차는 부서에서 제출한 총 86개의 시책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20건을 선정한 후, 2차 시민·공직자·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최종 10건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지역 현안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1004섬 신안 신의도 칠나를 담다!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화 차 茶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홍사

• 나주 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화사

광고·시장문의 062)370-7077